

<b>환경부 보도 설명자료</b>	제공일	2019년 10월 18일
	소관부서	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
	담당자	성수호 과장/박은혜 사무관 (044-201-6790/6798)

**제목 :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 지하역사  
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**

[KBS 뉴스 2019.10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환경부는 ‘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’을 수립·시행하고 터널 미세먼지 저감,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2019.10.17.일 KBS 뉴스 <미세먼지 퍼올리는 지하철 환기구...시민에 무방비 노출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**1. 기사 내용**

- 지하철 터널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환기구를 통해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,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오염물질 관리 시급

**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**

-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,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

※ 레일 마모로 발생하거나 외기로부터 유입되어 축적된 미세먼지로 인해 터널 내 농도가 높은 수준(200~300 $\mu\text{g}/\text{m}^3$ )

- 이 중 터널의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는 철로바닥 개량(자갈도상→콘크리트), 살수배관 설치 등이 있으며, 특히 2019년 추경부터는 터널 본선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음

- 이에 따라 터널 본선 환기구를 통해 급·배기되는 미세먼지를 집진하여 제거하는 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임

※ 2019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예산 850억원(본예산 200억원 + 추경 650억원)

- 정부는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